

# 시진핑 시기 중국 화교화인정책의 전개와 특징\*

이진영\*\*

## | 목 차 |

- |                          |                        |
|--------------------------|------------------------|
| I. 서론                    | III. 시진핑 시대 화교화인정책의 특색 |
| II. 화교화인정책의 전개와 정책 관련 기구 | IV. 결론                 |

## | 논문요약 |

시진핑 집권 후 중국의 화교화인정책은 이전 시기와 구별되고 있다.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중국몽 등 시진핑 사상과 일대일로 등 중국의 국가전략에 부응하여, 화교화인정책은 새롭게 개념화되고 정책화되고 있다. 특히 중화민족의 개념을 화교화인까지 확장하고, 동포로도 지칭한다. 공산당의 통제와 영도가 강화되는 가운데, 국무원 교무관공실 및 화문교육기금 등 산하기관을 재조직화하여 추진체계를 정비한 점이 특징이다. 또한 화교화인 정책성 강화를 위해 이전 시기와는 달리 다양한 언어, 문화 및 교류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를 전 세계 화교화인은 물론 국내 중국인까지 포함하는 사업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본 논문은 중국의 국력이 글로벌 차원에서 강화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시진핑 시기의 팽창적이고 공세적인 화교화인 정책을 분석한다. 특히 화교화인정책을 수행하는 조직과 기구에 대한 설명을 시도한 점에서 선행 연구와 구별된다. 이를 통하여 현재 중국 화교화인정책의 방향을 가늠해 보고자 하였다.

▪ 주제어: 화교, 화인, 화교화인정책, 시진핑, 중화민족

\* 이 논문은 인하대학교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I. 서론

해외에 거주하는 중국계 이주자들은 화교(華僑), 화인(華人), 화예(華裔)로 구분한다. 화교와 화인은 국적에 의한 법적 구분으로, 화교는 중국 국적의 해외 거주자를, 화인은 외국 국적을 취득한 중국계를 의미한다.<sup>1)</sup> 화예란 중국인의 후예로 다른 인종 및 민족과 혼인으로 문화적 정체성이 많이 상실되었으나, 역사적으로 중국 및 중국인과 연관된 후손을 의미하며, 문화적 구분이다. 한국에서는 주로 화교라고 통칭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화교로 통칭하기도 하고, 화교화인을 붙여 같이 사용하기도 하며, 동포라는 용어도 사용하고 있다. 화교화인과 관련된 업무는 교무(僑務)로 통칭하고 화교화인의 친족은 교권(僑眷)으로 통칭하는 예에서 보듯, 정부의 기구 명칭에서는 화교가 공식문서에서는 화교화인이 적절히 사용되고 있다. 특정 시기에 어떤 개념과 용어가 사용되는가 하는 것은 중국정부의 화교화인에 대한 정책적 태도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이다.<sup>2)</sup>

전 세계 화교화인의 인구는 위 개념의 복잡성에서 보듯 어떠한 용어와 개념을 사용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이민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길고, 그 결과 현지 사회에서의 동화, 심지어는 새로운 종족 집단으로 변모한 경우도 있어 개념의 포함범위에 따라 인구수는 상이한 것이다. 화교화인들의 인터넷상 네트워크인 중국교망(中國僑網)에 따르면 가장 많은 화교화인 인구가 거주하는 인도네시아의 경우, 약 1,000만 명의 화교화인이 거주하고 있고, 이들은 거주국에서 170개의 대기업, 500개의 중형 이상 기업, 그리고 30만 개의 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sup>3)</sup> 그러나 다른 연구나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화교화인 인구는 1,250만 명으로 위 통계와 250만 명이 차이가 나며, 인도네시아 전체 인구대비 5%에 불과하지만 경제력은 최대 상업은행을 포함하여 90%를 장악하고 있어 인도네시아 경제를 책임지고 있다 한다.<sup>4)</sup>

1) 자세한 개념 구분은 이진영(2005)의 논의를 참조하라.

2) 이 논문에서는 지칭하는 용어로 화교화인을 기본적으로 사용한다. 그러나 담당 기구나 공식 문서에서 사용하는 용어, 혹은 상황에 맞는 적절한 용어를 혼용하는데, 화교, 화인, 화예, 중화민족, 동포 등 같이 사용한다.

3) 중국교망(中國僑網), <http://www.chinaqw.com/>. (2018년 10월 15일 검색)

4) 네이버 포스트 (2017), “화교들이 많이 사는 나라 TOP 10”, <https://m.post.naver.com>

이 연구의 목적은 그러나 화교화인의 개념이나 인구 혹은 경제적 영향력에 대한 것이 아니다. 중국 정부의 화교화인정책, 특히 시진핑(習近平) 시기 화교화인정책이 이전 시기와는 구별되는 특징이 무엇인가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다. 시진핑 시기 화교화인정책은 중국몽이나 일대일로 등 국가전략 변화에 맞추어 새롭게 체계화되고, 화교화인을 국가전략 추진 파트너로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 그 결과 중화민족의 외연에 화교화인을 포함시키면서, 이들의 정체성 강화를 위한 화문교육 및 교류사업이 대대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또한 이런 사업 추진을 위해 화교화인정책 기구의 개편과 운영 방식도 변화하였다.

화교화인정책에 대한 한국에서의 선행 연구는 나영주(2015)의 논의에 잘 정리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① 시진핑 시기에 초점을 두고, ② 화교화인정책의 조직과 기구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시도하며, ③ 시진핑 시기에 더욱 강조되고 있는 화교화인 대상 중화민족 및 중화문화 부흥 프로그램을 제시하여 시진핑 시기 화교화인정책의 특색을 고찰하려 한다. 이는 기존의 연구에서는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았던 부분이다.

이를 위하여 제 II장에서는 시진핑 시기 이전까지의 화교화인정책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정책수행을 위한 조직과 기구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21세기 중국의 화교화인정책의 대강을 파악할 수 있다. 제 III장에서는 이전 시기와 구별되는 시진핑 시기(2012~) 화교화인정책의 특징을 분석한다. ① 국가전략 변화, ② 중화민족 개념의 변화, ③ 공산당 통제체제 강화, ④ 중화문화 부흥 프로그램 구체화를 특징적 요소로 제시한다. 이는 시진핑 이전 시기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특징으로, 현재 중국의 화교화인정책의 방향과 구체적 정책 집행의 방향을 파악할 수 있는 요소이다.

## II. 화교화인정책의 전개와 정책 관련 기구

중국의 화교화인정책은 역사적으로 여러 차례 부침을 겪었다. 화교정책을

---

[/viewer/postView.nhn?volumeNo=7997187&memberNo=32660183&vType=VERTICAL](#)  
AL. (2018년 10월 15일 검색)

수행하는 조직과 기구는 화교화인정책의 전개에 따라 새로 조직되거나 해소되고, 그 권한이 변모하였다. 그러므로 먼저 1절에서는 시진핑 시기 이전까지 중국 정부의 화교화인정책의 흐름을 개관한다. 2절에서는 당-정-군중조직이라는 중국의 특색 있는 체계 내에서 중국의 교무(화교업무) 체계 조직과 구조를 살펴본다.

## 1. 화교화인정책의 전개

시진핑 시기(2012~) 이전 중국의 화교화인정책에 대한 선행 연구는 앞서 언급한 대로 다수 있으므로, 이 절에서는 후진타오 시기(2002-2012년)까지의 전개 양상을 간략하게 살펴본다.

중국의 건국(1949) 이후 중국 공산당 및 정부의 화교화인정책은 신중국(新中國) 건설에의 참여와 지지를 얻는 것이었다. 1954년 헌법제정과 한국의 국회에 해당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수립되기 전에는, 주로 대중조직인 정치협상회의(정협)를 통해 화교들의 공산 정부에 대한 지지와 귀국 화교(귀교)에 대한 공민화, 해외화교 자본 유치를 정책 기조로 내세웠다. 특히 국민당 및 타이완에서 설립된 중화민국 정부와의 대결 구조 속에 화교의 지지를 얻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신중국에 대한 지지를 얻는 것이기에 중요하였다.

그러나 이미 거주국의 국적을 취득한 화인이 다수인 상황에서 국제적 분쟁을 피하고자, 중국공산당이 주축이 되어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성립하게 된다. 공산당 통일전선부(통전부)가 화교업무를 거주지역에 따라 3분(사회주의 형제국, 신흥국, 자본주의 적대국)하면서 화교의 거주국 국적 취득 및 정책도 달리하였다. 1957년부터 중국 내의 정치변화는 화교정책에 영향을 미치는데, 반우파투쟁(1957-1960년)과 10년 문화혁명(1966-1976년)기에 화교에 대한 정책은 사실상 기민(棄民: 방치하여 버려둠)정책과 탄압의 시기였다 할 수 있다. 화교에 대한 정치적 비판은 물론, 화교자본 도입 중단, 화교업무 기구를 폐지한 것이다.

1978년 중국이 개혁개방 노선을 채택하면서 화교업무는 점차 회복된다. 탄압받았던 화교의 명예회복 작업과 함께, 중국 내 화교 투자를 독려하기 위

해 이교인자(以僑引资: 화교를 통해 자금을 도입한다) 및 이교인지(以僑引智: 화교를 통해 지식과 기술을 도입한다) 정책을 통해 우호적 정책 환경을 조성한다. 이는 1990년 귀국 화교에 대한 우대 정책, 즉 ‘중화인민공화국귀교교권권익보호법’으로 최종 법제화된다.<sup>5)</sup>

1989년 천안문 사건으로 잠시 다시 주춤했으나, 법제화된 화교정책은 후진타오 집권 1기(2002-2007년)인 2005년 ‘대화교업무(大僑務)’라는 틀로 일단 정리된다. 대화교업무의 특징은 첫째, 화교가 중국의 국가발전에 중요하다는 인식, 둘째, 독립노선을 펼치는 민진당 정부의 타이완에 대한 저지에 화교 활용, 화교에 대한 구체적인 법령 및 제도 정비로 나눌 수 있다. 중국 국가발전에 활용코자, 화교투자법령, 귀교 권익 보장, 화교투자 영역 확대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화교가 대만의 독립을 반대하고 통일을 촉진하는 데 역할을 할 것을 요구하는 반독촉통(反獨促統) 정책을 채택하였다. 후진타오 집권 2기(2007-2012년)의 화교정책은 세계 정치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중국의 위상이 반영된 새로운 방향과 제도화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때 수립된 화교정책의 기본 기조는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중국의 외교전략이 ‘평화발전(和平崛起)’과 ‘조화로운 세계(和諧世界)’로 정리되면서, 대국외교에 맞는 화교정책의 재범주화가 이루어졌다. 중국이 자신을 강대국으로 범주화하면서, 그에 맞는 역할을 해외에서 하고자 하는 방향 설정으로 어느 정도는 공세적인 화교정책을 수립하는 기반이 되었다. 특히 소프트 파워가 중시되는 국제사회에서 문화외교 및 공공외교와 결합한 화교정책은 화교에 의한 중국어(한어)의 국제화 실현이나 해외로의 이주 장려로 신화교 집단을 형성하게 하는 적극적 정책을 수립하게 된다.

이는 화교를 중국과 결합할 수 있는 종합국력 형성의 한 주체로 파악한 것이다. 거주국에서 상당한 경제적 실력을 가진 화교들을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동원하여 중국의 국가이익과 중국문화 확산에 일익을 담당하게 하는 방향 선회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 결과, 화교를 통한 거주국과의 정치관계 연결, 화교의 정치력 신장 강조 및 선거 등 거주국의 정치참여를 독려하게 된다.

구체적인 조치로는 세계화상대회를 통한 경제적 통합 강화, 동남아와의

5) 자세한 내용은 최승현(2012) 및 김혜련·임채완(2015)의 논의를 참조.

연결 강화, 2004년 국무원 교무관공실 산하에 설립한 ‘화문교육기금회’, 2007년까지 중국어 교재 및 교사 파견 강화, 2004년 서울에 처음 설립된 공자학원을 통한 중국어 교육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점차 글로벌화하는 중국의 역할에 맞추어 화교정책도 다원화 구체화되는 것으로, 화교들이 자체 운영하던 세계화상대회에 중국 정부가 참여한다든지 차세대 화교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킨다든지, 중국어 교육과 화교 정체성 강화를 연관시키려 한 시도가 그것이다. 즉 후진타오 시기 화교정책은 중국 종합국력의 한 주체로 화교를 위치시키고, 화교의 정체성 강화를 위한 중국어 및 정치력 신장 등의 조치를 강조하면서 제도화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화교화인의 정체성 교육에 대한 구체적 관심이 제도화로 이어지고, 외국인인 화인이지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역할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제도화가 이루어지며, 중국 국적자인 화교들의 해외진출을 장려하는 정책을 시행한 것이다.

## 2. 화교화인정책 기구와 조직

그렇다면 중국의 화교화인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와 조직은 어떠한가? 당-정-군중조직이라는 중국 특색의 조직체계 속에서 중국 공산당, 중국 정부, 그리고 군중조직 중 화교화인과 연결된 기구들이 화교화인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담당하고 있다. 먼저 중국 특색의 화교화인정책 추진체계를 먼저 살펴보고, 화교 화인업무와 연관된 당-정-군중조직의 연관 기구들을 구체적으로 고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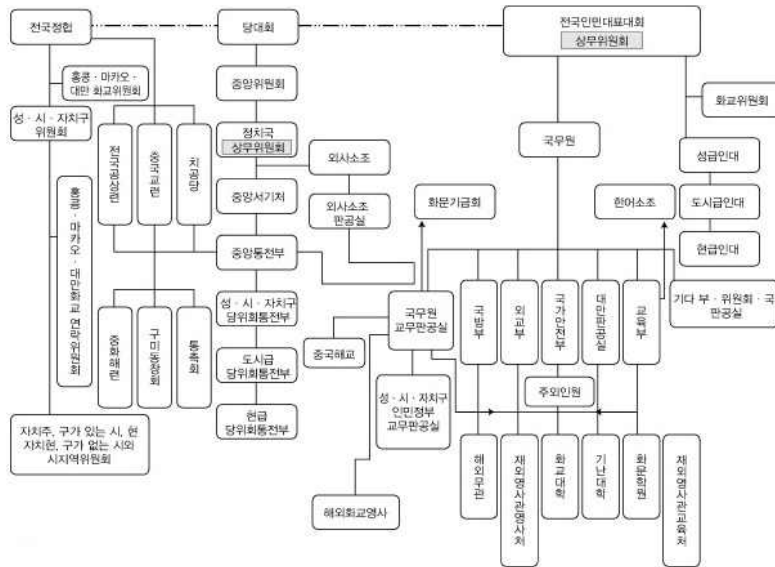
### (1) 당-정-군중조직으로 구성된 중국 특색의 화교화인정책 체계

당-정-군중조직이라는 정치구조와 오랜 화교화인의 이민 역사로 중국의 화교화인정책 체계는 매우 복잡적이며, 중국만의 특색을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의 정치 구조 및 운용 방식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으면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화교화인정책의 체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공산당이 영도하는 사회주의 국가로, 당이 정부에 비해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이원 체제는 한국과 같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와는 비

교되는 것이다. 중국의 당과 정부 소위 당-정관계는 개혁개방 이후 여러 차례 변화를 겪고 있고, 시진핑 2기 시대인 지금 또 다시 변모를 겪고 있다. 또한, 당의 영도는 다양한 군중조직을 통해 인민의 지지를 얻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화교화인정책에서도 이러한 당-정-군중조직의 체계는 예외가 아니다. 즉, 당이 중심이 되면서 정부와 군중조직을 거느리는 형태인 것이다.

<그림 1>은 공산당이 중심이 되어, 군중조직과 정부를 아우르는 중국의 당-정-군중조직 화교화인정책 조직 및 체계를 보여주고 있다. 가운데 중심에는 당대회를 필두로 공산당의 조직체계가, 오른쪽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등 정부의 기구와 조직이, 그리고 왼쪽에는 전국정협 등 군중조직이 나타나 있다. 이를 당과 군중조직 그리고 정부 순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중국의 교무 조직 및 체계



· 판스핑(2014, 153)

(2) 당의 교무 관련 조직

중국 공산당은 사실상 일당독재로 중국의 정치 및 군사 분야를 완전 장악하고 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는 당-정-군중조직의 체계로 조직화되어 있

다. <그림 1> 가운데에 중국 공산당의 화교화인정책 관련 조직도가 나와 있다. ‘형식상’ 당 최고기관인 당대회를 정점으로, 200여 명의 중앙위원으로 이루어진 중앙위원회, 그리고 특히 중앙위원 중 선출된 22-25명의 정치국원으로 이루어진 정치국이 ‘실제적’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정치국원 중 7명의 정치국상무위원은 중국을 현재 이끄는 최고위 지도층이다. 시진핑 총서기를 비롯하여, 리커창-리잔수-왕양-왕후닝-자오러지-한정 등 7명이 2017년 10월 선출된 제19기 정치국 상무위원을 서열대로 이루고 있다.

이 중 화교화인정책을 총괄하는 기구는 비서실에 해당하는 중앙서기처 아래에 위치한 중앙통일전선공작부(中央統戰部, 통전부)이다. 통전부는 공산당의 통일전선을 주관하는 기관으로, 공산당을 제외한 여러 당파, 소수민족, 종교집단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는 곳이다. 여러 당파에는 현재 타이완으로 간 국민당을 비롯하여 형식적인 민주당과 및 무(無)당파 인사들이 포함되며, 55개 소수민족,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공산국가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회교, 기독교, 불교 등 다양한 종교집단 등이 통전부의 사업대상이다. 물론 일당독재 아래서의 업무이기에 ‘조국을 분열시킬 수 있는’ 여러 집단을 통제하는 통전부의 영향력은 중국 내에서 막강하다. 통전부 홈페이지의 첫 화면에는 “민족단결과 종교 간의 조화를 촉진”한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sup>6)</sup> 이것이 통전부의 주요 임무이다. 세부 배너에 다당합작, 소수민족, 종교사무, 당외 지식인에 대한 관리와 함께 티벳 및 신장에 대한 업무가 별도로 나오고, 홍콩-마카오-대만 및 해외부문이 나타나 있다.

화교 업무는 통전부 내에 홍콩-마카오-대만 및 해외부문에 속해 있다. 당이 정치를 이끄는 중국의 체제에서 정부의 국무원 교무관공실을 ‘사실상’ 이끄는 역할을 하는 것이 통전부이다. 통전부는 중국의 행정조직에 따라, 성급-지구급(도표에는 도시급으로 표현)-현급 공산당 위원회에 조직을 가진 전국적 조직이다. 홈페이지의 홍콩-마카오-대만 및 해외부문을 클릭하면,<sup>7)</sup> 각 부문 속에 화인 화교부분이 왼쪽에 위치해 있고, 오른쪽 아래에 연관된 연결망(링크)이 국무원교무관공실을 비롯한 화교 관련 사이트와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화교망(中國僑網)에서 가져온 “교: 개혁개방 40년 화교 역

6) 통일전선부, <http://www.zyztzb.gov.cn/html/index.html>. (2018년 10월 15일 검색)

7) 통일전선부, “홍콩-마카오-대만 및 해외부문”, <http://www.zyztzb.gov.cn/gathw/index.jhtml>. (2018년 10월 17일 검색)

량”이라든지 “전 세계 화교들이 중국 개혁개방 40주년을 축하”했다든지 하는 화교에 대한 기사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통전부가 어떠한 사업을 화교에 대해 수행하고 있고, 통전부의 화교 관련 조직은 어떠한지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이것은 통전부의 업무 성격이 중국에서 고도로 민감한 주제인 소수민족이나 종교 집단, 그리고 다른 당파와의 관계를 다루는 데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이 점은 화교 사무 역시 예외가 아니다.

통전부가 실제적 교무를 구체적으로 다루는 최고 기관이라면, 정치국 상무위원회 옆에 위치한 외사소조(중공중앙외사업무지도소조)는 외교업무 관련 최고 협의기구이다. 1958년 설립되어, 매주 혹은 중요한 안건이 있을 경우 수시로 모여 의견을 나누고, 이를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전달하는 기능으로 사실상 화교정책을 포함한 외교정책의 최고 결정기관이다. 조원은 알려져 있지 않으나 총서기, 국무원총리, 외교담당 부총리급인 국무원, 외교부장, 공산당 대외연락부장, 대외경제협력 부장 등은 당연직으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는 왕치산이 사실상 소조를 지휘하고 있다 한다(『조선일보』 2018/09/08). 외교부장관이나 외교담당 부총리가 아닌, 그리고 실제로 당의 정치국 상무위원도 아닌 고령의 국가부주석인 왕치산이 실제로 외교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시진핑 2기 시대의 특징이다. 중요한 점은 화교화인정책이 이 외사소조의 업무에 들어가 있다는 점이다. 이는 화교화인정책이 중국의 외교정책 기초하에서 논의되는 사안이자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 (3) 교무 관련 군중조직 등 외곽조직

<그림 1> 조직도의 가장 왼쪽은 군중조직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실상 공산당에 의해 통제되는 외곽조직이다. 당의 통전부에 의해 통제되는 외곽조직은 다수이지만, 그 중심은 전국정치협상회의(정협)이다. 정협은 ‘통일전선’ 기초하에 ‘다당적 협력과 정치협상’을 담당하는 기구이다. 앞서 언급한 통전부의 대상 업무에 해당하는 공산당과 민주 세 당파는 물론 각 민족 및 종교 집단 대표, 홍콩-마카오-대만 등 동포, 귀국화교 및 특별 인사로 구성된다. 통전부가 중국공산당의 기구라 한다면, 정협은 그 대상이 되는 인사들의 모임이라 할 것이다. 정협은 봄에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전에 회의를 개최

하며, 이 둘을 합하여 양회(兩會)라 통칭하기도 한다. 직능이 정치협상, 민주 감독, 정치참여, 정부논의라 하는데 사실상 의전적이고 명예적인 조직이다. 정협은 전국위원회와 함께 각 행정단위 그리고 부문별로 위원을 두고 있다. 정협 전국위원은 현재 13차 전국위원회인데, 총 299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소수민족 중 조선족으로는 연변조선족자치주 주장을 역임했던 전철수(全哲洙), 리용희(李龍熙) 등이 포함되어 있다.<sup>8)</sup> 화교 업무는 1998년 설립된 홍콩-마카오-대만-화교위원회 내의 교계위원회(僑界委員會)에서 담당한다. 가장 최근의 주요 사업의 내용을 보면, 화교들이 중국 내의 각 성을 방문하여 둘러보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sup>9)</sup> 한국과 비교한다면, 대통령 직속의 평동자문회의의 해외동포 부분과 유사한 기능이라 할 것이다.

군중조직 중 화교와 직접 연관 것은 화교의 당이라 할 치공당(치공당), 중국으로 귀국한 화교 모임인 교련, 화교 자본 유치와 관련된 공상련, 유학생 단체인 구미동창회, 대만과의 통일을 위한 통족회 등이 있다. 또한, 최근 활동이 활발해진 중국해외교류협회(해교)도 있다. 이런 군중조직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정협의 ‘홍콩-마카오-대만 화교 위원회’에서 주역을 담당한다. 군중조직은 공산당의 외곽조직으로 사실상 친목과 단결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 할 수 있고, 중국 공산당의 정책 기조에 맞추어 화교화인을 동원하고 정책을 사실상 수행하는 기관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화교들의 정당인 치공당은 올해 90주년을 맞이할 정도로 역사가 오래된 조직이다. 중국공산당의 ‘통일전선’의 일환으로 성립되었기 때문으로, 공산당의 화교정책에 따라 변모를 거듭하였다. 개혁개방 후 증가한 귀교들을 보충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중앙과 각 지방에 지부를 두고 활동한다. 2018년 주요 사업 3개가 “중국공산당 19차 당대회 정신을 계승”한다든지 치공당의 명칭이 탄생한 5-1구호(“힘을 다해 다당합작을 하고, 화교가 국가에 보답한다: 致力爲公、僑海報國”) 70주년을 기념하고, “(공산당과의) 다당합작의 초심을 잃지 말자”는 등에서 보듯, 외곽 조직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sup>10)</sup>

중화전국귀국화교연합회(중국교련)는 화교였다가 중국으로 귀국한 사람

8) 전국정치협상회의, <http://www.cppcc.gov.cn/>. (2018년 10월 15일 검색)

9) 홍콩-마카오-대만 화교 위원회, <http://www.cppcc.gov.cn/zxww/newcppcc/gatqwyh/index.shtml>. (2018년 10월 17일 검색)

10) 중국 치공당, <http://www.zg.org.cn/>. (2018년 10월 15일 검색)

들의 조직이다. 앞서 중국의 화교정책에서 살펴보았듯이, 중국은 국내 투자 목적이나 혹은 영주귀국을 한 화교들을 대상으로 한 귀교교권권익보호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范如松·嚴武龍 2012). 교련은 그 직속기관으로 협회, 연구소, 출판사, 박물관, 기금회 등을 두고 있으며, 지방에도 협회를 운영하고 다른 화교 단체와 연관하여 사업을 하고 있다.<sup>11)</sup> 또한, 매년 회의를 개최하여 올해는 10차 전국귀교교권대회를 8월 30일 베이징에서 개최하여, 시진핑 주석을 포함한 지도부가 총출동하여(『新華社』 2018/08/30) 중국 공산당의 귀국화교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국내 거주 외국인 중 재외동포가 100여만 명에 달하는 한국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귀환동포들이 연합하여 단체를 만들고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는 경우여서 여러 시사점을 준다고 할 것이다.

중화전국공상업연합회(전국공상연)는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이 자본주의적인 공업 및 상업을 운영하는 자본가들을 포섭하려는 시도로 1953년 설립된 기구이다. 당시 공산정권이 수립하면서 자본가들이 해외나 타이완으로 빠져나간 상황에서, 소위 “붉은 자본가”인 “애국 화교”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되었기에 화교 업무와 연관이 깊었다.<sup>12)</sup> 개혁개방 초기에는 화교 자본을 유입하는 창구로 사용되었으나, 21세기 들어 중국이 글로벌화하면서 화교 관련 사무는 크게 감소하고 있다.

반면, 구미동창회 혹은 중국유학인연합회(歐美同學會: 中國留學人員聯誼會)는 1913년 설립된 유서 깊은 단체이다. 초기에는 주로 미주 및 구주(유럽)에서 유학한 인원이 중심이 되어 중국으로 돌아와 조국 발전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개혁개방 후인 1983년에 재성립되었다. 중국 정부의 해외 화교 인재 유입을 위한 목적으로 2003년 그 범위가 전 세계 유학인으로 확대되었다. 2013년 100주년 기념행사에서 시진핑이 행한 연설이 기본정책인데, “유학인재들이 나라에 기여하고, 고급인재로써 의견을 제시하고, 민간외교의 주력으로서 책임을 다하는(努力踐行留學報國人才庫、建言獻策智囊團、民間外交生力軍的責任與使命)” 기구이다.<sup>13)</sup> 중국 지방에 42개 조직이 전 세계 15개국에 지부가 있고, 개인 가입회원이 22만 명에 달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해

11) 중화전국귀국화교연합회, <http://www.chinaql.org/>. (2018년 10월 15일 검색)

12) 중화전국공상업연합회, <http://www.acfic.org.cn/>. (2018년 10월 15일 검색)

13) 구미동창회, <http://www.wrsa.net/>. (2018년 10월 15일 검색)

외 고급 우수인재 1,000명 유치계획(千人計劃)과 밀접하게 연결된 조직이다.

중국평화통일촉진회(통촉회)는 1988년 성립된 앞서 화교화인정책에서 언급한 중국통일에서 화교들의 협력을 얻고자 만든 조직이다. 설립목적 자체가 당시 중요하게 제기된 사안들인 “타이완 독립 반대, 2개의 중국 반대, 하나의 중국 하나의 타이완이라는 현상 유지 반대(“台湾獨立”, “兩個中國”, “一中一台”))를 내세우고, 홍콩 및 마카오가 중국의 일원이 되며, 타이완 역시 중국의 일부라는 중국의 방침을 화교에게 알리고 통일에 역할을 하도록 고무하는 단체이다.<sup>14)</sup> 회장을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중 1인(俞正聲)이 맡고 있어, 당이 직접 관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해외교류협회(중국해교)는 중국의 개혁개방이 심화되는 시기인 1990년, 화교를 포함한 인사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한 단체이다. 그 목적에, 홍콩, 마카오, 타이완 세 지역 및 기타 화교들을 포괄하여 경제, 기술, 문화, 교육, 사회복지, 관광 등에서 중국과 세계 화교를 잇는 역할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화교들의 중국 관광부터 각종 교류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2017년 현재 95개 국가에 지부를 운영하고 있다.<sup>15)</sup> 최근 열린 베이징 지부 사업회의에서 “시진핑의 신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을 견지할 것을 결의하는 등 중국 공산당의 방침을 이행하고 있다.<sup>16)</sup>

결론적으로 균중조직 및 외곽조직은 화교들이 중심이 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화교화인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중국 공산당의 화교화인정책을 수행하고 집행하는 기구인 것이다.

#### (4) 중국 정부의 교무 담당 기구와 조직

당이 정책의 두뇌에 해당한다면, 사실상 손발 역할은 중국 정부가 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우리의 입법부인 국회에 해당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행정부에 해당하는 국무원이 정부로 구분되어 우리의 삼권분립 체제

14) 중국평화통일촉진회, <http://www.zhongguotongcuhui.org.cn/>. (2018년 10월 15일 검색)

15) 중국해외교류협회, <http://www.coea.org.cn/>. (2018년 10월 15일 검색)

16) 교무관공실, “北京海外交流協會2018年年會舉行”, <http://www.coea.org.cn/2018-10-08/detail-iuuswwpc6868466.shtml/>. (2018년 10월 15일 검색)

와는 다른 특색을 보인다. 전인대에는 분과위원회로 화교위원회를 산하에 두고 있다.<sup>17)</sup> 전인대는 행정조직에 따라 성급-지구급-현급에 조직이 있으며, 현재 화교들이 많이 거주하거나 지역출신의 해외 화교가 많은 곳에서는 그 산하에 화교위원회를 두고 있다. 그러나 앞서 정협에 언급한 것처럼 전인대의 기능은 제한적이고, 특히 화교 업무는 더욱 그러하다. 우리의 행정부에 해당하는 국무원은 ‘형식상’ 국가 최고 기관인 전인대 아래에 존재하는 기구이다. 그러나 국무원은 중국공산당과 비교하면 역시 ‘하급적’ 기관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의 국가체계는 당이 영도하는 체계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국무원의 장인 총리는 현재 리커창 정치국 상무위원(서열 2위)이 맡고 있고, 많은 부서가 공산당 조직의 연관부서와 장관급(부장)이나 혹은 차관급(부부장)을 공유하고 있다. 즉, 당과 정부의 부서의 장은 직책 즉 명함상 표기는 달리하지만, 실제로는 동일인이 맡고 있는 경우가 많다.

행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은 국무원 교무관공실이다.<sup>18)</sup> 교무관공실은 국무원 내 조직에 있는 각 부서(국방부, 외교부, 교육부 등)와는 달리, 국무원 총리를 보좌하여 전문업무 및 특별 업무를 처리하는 업무기관의 성격을 가진다. 이 점에서 당 중심의 중국에서 정부의 기능 중 교무관공실에서 수행하는 화교 관련 업무는 독자적이라기보다 총리 혹은 당 통전부의 지시를 수행하는 집행기관의 성격이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교무관공실은 화교업무의 방침, 정책, 법규를 제정하는 최고 기관이고, 각급 지방정부에도 교무관공실이 있다. 1978년 설립 이래로 다양한 조직을 보유하고 있고, 소속기관으로 신문사 및 대학 등을 보유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후진타오 시대 화교의 정체성 및 중국어 교육을 강화하는 정책이 추진되기 시작하여, 교무관공실 산하에 중국화문교육기금회(화문교육기금)가 2004년 설립되었다.<sup>19)</sup> 아래 교육부의 해외중국어 교육이 공자학원으로 확대 개편되는 것과 달리, 화문교육기금은 주로 화교화인에 초점을 둔 것이다. 교무관공실과 화문교육기금에 대해서는 III장에서 상술한다.

당이 중심이 되는 화교업무이지만, 중국 정부의 화교업무 역시 중국의 경

17) 화교위원회, [http://www.npc.gov.cn/npc/bmzz/huajiao/node\\_34380.htm](http://www.npc.gov.cn/npc/bmzz/huajiao/node_34380.htm). (2018년 10월 15일 검색)

18) 국무원 교무관공실, <http://www.gqb.gov.cn/>. (2018년 10월 15일 검색)

19) 중국화문교육기금회, <http://www.clef.org.cn/>. (2018년 10월 15일 검색)

제성장과 국제적 위상에 따라 변모하면서 확대되었다(판스핑 2014, 165). 먼저 외교부를 보면 주로 영사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화교 및 화인이 중국에 입국, 투자하는 것에 대한 연락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의 재외동포에 해당하는 화교 화인 단체나 지도자 기업가들과의 네트워크를 담당하는데, 사실상 교무관공실의 업무와 중복되는 부분도 많다. 국가안보부(국안부)는 우리의 국가정보원에 해당하는 기구로 반간첩 및 해외정보를 책임지는 기관이다. 화교 유학생 및 주재 기관원 감시는 물론, 화인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공작 활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업무의 특성상 전모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타이완관공실 역시 밀접하게 화교와 연관된다. 앞서 언급한 대로, 타이완의 독립에 반대하고 조국의 통일을 촉진시키는 데 화교들이 역할을 하도록 요청하고 있으므로, 소위 양안관계에 대한 화교 업무를 처리한다 할 것이다. 국방부 역시 해외에 주재하는 무관을 파견하여 화교 사회와 접촉하고 있다. 화교 및 해외무관들과 연관된 여러 스파이 사건은 이미 수차례 공론화되었으며,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스파이 활동 때문에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업포도 놓았다고 전해진다. 문화부 역시, 문화공공외교의 일환으로 화교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서는 교육부이다. 교육부는 그 산하에 1987년 설립하고, 2006년 현재의 명칭을 사용하는 국가한판(國家漢辦: 國家漢語國際推廣領導小組辦公室)을 두고 중국어의 해외보급과 홍보를 하고 있다.<sup>20)</sup> 중국어 교사, 중국어 시험, 중국어 과정에 대한 표준을 정하고 보급하는 것을 일차적 목적으로 하며, 이를 통하여 중국문화를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 대상이 외국인인 중심이지만 화인은 물론 화교도 대상이다. 2004년 공자학원이 설립되면서 공자학원을 운영하는 사실상의 본부 역할을 하게 되었고, 홈페이지 상으로는 공자학원총부/국가한판으로 두 기관이 하나의 홈페이지로 통합되어 제시되고 있다.<sup>21)</sup> 공자학원 역시 중국어와 중국문화를 알리는 기관이지만, 공식적으로 주요 대상은 외국인이다. 2004년 한국 서울에 첫 설치된 공자학원은 2017년 12월 31일 현재, 전 세계 146개 국가에 설치된 대표적인 중국어 교육기관이다. 공자학원과 그보다 작은 규모의 공자

20) 국가한판, <http://www.hanban.edu.cn/>. (2018년 10월 15일 검색)

21) 자세한 내용은 박운석·이승우(2013)의 논의를 참조.

학급(孔子課堂)으로 나누어지는데, 공자학원은 138개국의 525개소, 공자학급은 79개국에서 1,113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공자학원에서는 중국어 및 중국문화를 외국인에게 교습하고, 상호 교류하면서 문화공공외교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sup>22)</sup> 공자학원에 대한 평가는 중국의 소프트 파워를 확산하는 외교적 첨병으로서의 공세적이고 침투적인 기관이라는 부정적 입장부터, 새로운 글로벌 문화 전파의 모델이라는 시각까지 다양한 시각이 교차하고 있다(최은진 2015, 65-67; 채하연 2008, 321-347). 중요한 점은 일반 외국인 대상이라 하나, 외국적의 화인은 물론 중국 국적의 화교 2세 등도 수강하고, 각 지역마다 운영모델을 다르게 하면서 화교의 정체성 교육에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에서도 예외가 아니다(孫倩 2018, 129-146).

### III. 시진핑 시대 화교화인정책의 특색

#### 1. 국가전략과 중국몽의 화교화인정책

2012년 11월 집권한 시진핑은 통치이념으로 ‘중화민족의 중국몽(中國夢)’을 내세웠다. 중국몽이란 19세기 중엽 아편전쟁에서의 패배와 반(反)식민주의와 사회주의 투쟁,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실현이라는 170여 년의 도정을 거쳐 온 중화민족이 새로운 부흥을 이루려는 꿈이다(김태만 2013, 6). 시진핑은 “중국몽은 국가몽, 민족몽이자 모든 중화자녀의 몽(夢)”으로 “화교 ‘동포’(필자 강조)는 애국심과 거대한 경제력, 풍부한 지적 자원, 넓은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어서 중국몽 실현의 중요한 역량”으로 범주화하고 있다(『중앙일보』 2018/02/06). 2017년 집권 2기를 새로 시작한 시진핑은 공산당 당장에 시진핑 사상을 삼입시키고, 1인 지배 체제를 수립하려 하고 있다. 이 시진핑 사상에서도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중국몽은 여러 차례 강조되고 있다(홍건식 2018, 100). 시진핑이 추구하는 세계 전략인 일대일로(일대일로)의 해당 국

22) 공자학원, <http://www.hanban.edu.cn/confuciousinstitutes/>. (2018년 10월 15일 검색)

가에도 화교는 다수 거주하고 있다. 바야흐로 중국 화교들은 중국몽과 일대 일로의 전위대 역할을 요청 받고 있는 것이다(나영주 2015, 65-66).

중국몽은 공식적으로 유교적 인본주의에 기초한 철학체계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중국몽이 정치, 경제, 문화, 제도 등의 중국인민의 역량이 결집된 것으로 교시되자 급격히 정책화하게 된다(김태만 2013, 6-25). 즉 2021년에 중국인의 먹고 살며 문화생활 등도 즐기는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하고, 2049년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달성하는 것으로 중국몽은 수치화됐다. 또한 2015년 12월 ‘시진핑 총서기 화교 업무 논술 연구회’라는 모임이 베이징에서 개최되면서, 중국몽을 이루기 위한 화교들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었다. ‘화교 동포들이 현지 주류 사회에 융합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과 ‘세계정세의 변화에 발맞춰 화교 및 화인의 작용과 지위를 새로 설정하는 것’ 등 두 가지 사항이 집중적으로 논의되면서 시진핑 시기 화교정책의 대강이 완성된 것이다(『중앙일보』 2018/02/06). 이는 후진타오 말기이자 시진핑 집권 초기인 2012년 범주화된 화교화인의 역할체계 중 미래의 역할을 좀 더 구체화한 것이다. 2012년 화교청서(華僑華人藍皮書編委會 2012, 21-25)에서 화교화인의 역할은 ① 중화민족의 우수한 문화 전파, ② 모국 발전에 기여, ③ 중국과 세계경제를 잇는 역할, ④ 중국 전통문화를 새롭게 하고, ⑤ 화교화인의 정체성을 결합시키는 자식의 역할로 규정되었다. 그 결과, 미래 교무의 중심을(范如松 2012; 247-257) ① 화교화인이 해외에서 중국의 모습을 나타내는 존재이니 국가이익을 옹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 ② 중국 경제 형성의 옹호자, 참여자, 공헌자이니 중국의 해외이익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 ③ 중화문명의 옹호사절이니 해외에 적극적으로 중화문화를 전파할 것,<sup>23)</sup> ④ 화교화인이 세계적으로 이제 충분한 역량을 가졌으니, 공공외교 측면에서 선전하고 움직이고, 중국과 세계를 잇는 구조를 직접 만들도록 하는 것을 들고 있다.

시진핑 시기 화교화인정책은 2016년 12월 “국가교무사업발전강요”로 수립된다. “교포들의 마음과 힘을 응집하고 함께 중국 꿈을 이루고 누린다(凝聚僑心僑力、同圓共享)”라는 종합적이고 지속가능한 교무사업의 발전 추진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13차 5개년 계획(十三五: 2016-2020년) 시기 교무사업 계획

23) 2000년부터 적극적인 문화수출이 시작되었다(권기영 2015, 128).

을 정리한 것이다. 교무관공실 주임 추웬핑의 『인민일보』(2016/03/14) 인터뷰에는 ‘국가전략의 발전과 함께하는 교무행정’을 언급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시진핑 시기 화교화인정책은 후진타오 시대보다 더욱 공세적으로 변모하면서, 글로벌 차원에서 화교화인들이 중국의 이익을 위해 세계를 중국과 연결시키고 새롭게 구조화시키는 첨병이 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2. 중화민족 개념의 확장과 화교화인

글로벌 차원에서 화교화인의 작용과 지위를 새로 설정하는 것은 화교화인을 단순히 정책의 대상인 타자화하는 것이 아닌, 중화민족의 일원으로 재편성하고 역할 체계를 설정하는 것이다(공봉진 2015, 224-226). 앞서 살펴본 대로 중국몽은 국가몽, 민족몽이자 모든 중화자녀의 몽(夢)으로 표현된다. 여기에서 문제는 누가 중화민족인가 하는 점이다. 기존의 중화민족 개념은 한족 중국인에 55개 소수민족을 포함하여 56개로 이루어진 중화민족 대가정을 의미하였다. 이 역시 기존의 중국민족의 개념을 확대한 것이다. 그 결과 우리의 재외동포인 조선족은 한민족의 일원이 아닌 중화민족의 일원으로 중국정부는 규정하는 것이다. 여기에 새로운 개념이 중화민족에 더해지고 있는데, 그것은 ‘동포(同胞)’로 타이완, 홍콩, 마카오와 함께 새롭게 화교화인을 연장선상에 위치시키고 있다. 이는 조직과 기구명칭에서도 나타나는데, 가령 통전부의 홍콩-마카오-대만 및 해외부문으로 표현하여 동포에 화교화인을 포함시킨다든지, 화문교육기금의 대상에 단순히 화교화인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닌 외국인까지 확대하여 언급하는 것 등에 나타난다. 물론 이는 다른 국가의 국적이나 민족 등의 개념과 충돌할 소지가 많은 것이나, 중국은 거주국과의 우호관계 유지를 얘기하면서 소프트파워의 실행 주체로 화교화인을 분명히 범주화하고 있다(王志章 外 2012). 이러한 인식이 글로벌 차원에서 진행되는 이주와 이민의 대추세 변화에 맞는 것으로 개념화하고(華僑華人藍皮書編委會 李明歡 2011, 35) 있다. 이제 더 이상 국적은 사실상 중요시하지 않고, 중화민족의 일원으로 화교 및 화인을 위치시키는 적극적 정책으로 변모한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몽이란 중화의 재보편화를 의미하며, 새롭게 창안된 보편화된 중국의 가치를 세계와 공유하자는 중국 중심의 접

근이기 때문이다(전인갑 2015, 228). 그 결과 새롭게 규정된 개념에 걸맞은 중요 역량을 가진 존재로 중국몽 실현 및 일대일로 등 국가전략에서의 화교화인의 역할이 가능한 것으로 확대되는 것이다(桂世勛 2011, 76-83). 최근 중국의 이러한 행보는 세계 여러 곳에서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 3. 당 영도 체제의 강화와 정책 기구 변화

시진핑 시기 화교화인 정책은 더욱 중국 특색의 구조를 보이고 있다. 먼저 국가전략 혹은 중국의 외교정책과 관련하여 화교정책을 입안하고 전략을 수립한다는 점이다. 또한 중국몽과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이라는 국가전략의 일환으로 화교정책이 위치되고 있다. ‘중화민족 동포로서 중화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함은 물론 중국과 세계에서 역할을 하기 위한’ 공세적이고 민족적인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는 시진핑 정부의 중국몽 실현을 위한 당 영도 체제 강화 속의 화교화인정책을 실제적으로 추진하는 정책기구의 변화로 나타난다. 한 보도에 의하면, 최근 당정기구 개편에서 소수민족문제를 다루는 국가민족사무위원회와 종교업무를 다루는 국가종교관리사무국이 통전부의 감독을 받게 되었으며, 화교화인 업무를 담당하는 국무원 교무관공실은 아예 통전부에 통합되었다고 한다.<sup>24)</sup> 이는 화교정책에서 당의 역할이 강화되고, 정부의 역할이 축소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보다는 당 우위의 국가인 중국에서 정치국 상무위원회 및 외사영도소조는 화교정책에서 최고 결정기구이다. 앞서 살펴보았듯, 시진핑은 ‘시진핑 총서기 화교 업무 논술 연구회’라는 모임을 통해 보좌 받을 정도로 화교업무를 중시한다. 당의 통전부 역시 국가전략 및 안보, 통일 등 거대 담론 속에서의 화교정책을 사실상 담당하는 화교화인정책 최고 추진기구이다. 그러나 외관상 드러나고, 시진핑 시기 점차 권한이 강화되고 있는 곳은 국무원 교무관공실과 그 산하의 화문교육기금회 및 외곽조직인 해외교류협회이다.

교무관공실의 업무는 ① 정책, 계획, 법률 입안, ② 연구조사, ③ 중앙 및 지방의 유관부서 총괄 및 외교부와 협조, ④ 귀교 권익보호사업, ⑤ 화교화인과 사회단체에 대한 친목 사업, ⑥ 경제, 과학기술 분야 협력과 교류 및

24)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를 인용 보도함(『연합뉴스』 2018/03/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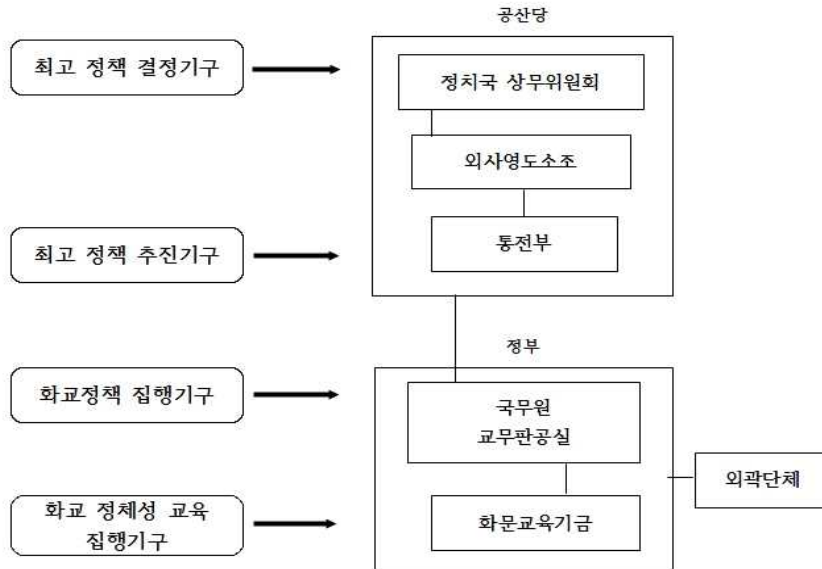
사업 민원에 대한 협조, ⑦ 문화교류와 화문교육 사업의 추진이다.<sup>25)</sup> 중요한 점은 비교적 최근이라 할 1990년대 말부터 업무영역에 포함되기 시작한 문화교류와 화문교육사업 추진이 시진핑 시기인 현재 교무관공실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되었다는 점이다. 교무관공실내 문화사는 직속 기관과 함께 여러 외곽단체를 이끌고 있는데, 화문교육사업을 위한 중국화문교육기금회와 문화교류를 위한 중국해외교류협회(해교)가 포함된다. 두 단체 모두 법인 정관에 국무원 교무관공실의 업무 지휘를 받는다고 명시되어 있고, 법인 주소지역시 국무원 교무관공실과 같아, 사실상 한 기관이라 할 수 있다.

화문교육기금회는 후진타오가 ‘중화문화는 해외교포와 조국의 유대감을 연결시키며, 중화민족의 우수전통문화 전승이라는 시각에서뿐만이 아니라 중화동포에 대한 혈육의 정을 고려하여야 한다’면서 2004년 설립하였다. 설립 목적은 ㉠중화문화의 확산, ㉡화문교육사업의 발전, ㉢중국과 외국간의 문화교류의 촉진이다.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2018년 현재, ‘화문교사 양성’, ‘화예 청소년 중화문화 전승’, ‘화문교사 모국연수’, ‘화문교구재 개발’, ‘전통명절 및 기념일 문화 장려’ 등이 있다. 군중조직인 해교, 중국교련 및 구미유학생회 등 다양한 외곽단체는 당의 방침이 화교화인들에게 실제적으로 집행되는 곳이다. 시진핑은 외곽단체의 연례모임에 직접 방문하거나 교시를 내려 독려하여, 화교화인의 중요성을 대내외에 과시하고 있다.

즉 정치국 및 통전부 등 당은 이론 및 수립과 정책 제시 등 두뇌의 역할을 수행하고, 교무관공실을 중심으로 화문교육기금이나 해교 등 군중조직을 활용하는 화교화인정책 체계가 시진핑 시기의 특징인 것이다(<그림 2> 참조). 앞서 살펴보았듯, 국가전략에서 화교화인 정책의 중요성과 함께 화교화인의 역할이 중시되고, 중화민족의 외연확대에 동포로써 화교화인이 포함되면서, 이들을 더욱 중화문화에 포섭하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화교화인정책성을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이 중요시되는 추진체계가 시진핑 시대 중시되고 있는 것이다(夏春平 外 2012).

25) 국무원 교무관공실, <http://www.gqb.gov.cn/>. (2018년 10월 15일 검색)

<그림 2> 시진핑 시기 화교화인정책 추진체계



#### 4. 중화문화 정체성 강화 프로그램의 추진

시진핑 시기 화교화인정책의 특징은 중화민족 동포로서 중화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함은 물론 중국과 세계에서 역할을 하기 위한 공세적이고 민족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구체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몽 실현을 위한 문화외교정책 및 공공외교정책 전면에 화교가 위치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sup>26)</sup> 또한 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중국 정부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국적 화인 및 화예들이 중화문화에 감동하고 전승하는 것을 존중하여야 한다는(丘進·嚴武龍 2011, 49) 논리까지 발전시키고 있다. 이는 이전 시기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시진핑 시기의 특징으로, 화교화인정책이 구호나 선언 혹은 법제가 아닌 구체적인 정책이 집행되는 것을 의미한다.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화교화인 정체성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과 사업

26) 시진핑 시기 중국몽과 문화정책 및 중화문화의 구성에 대해서는 김태만(2013)의 논의를 참조하라.

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여, 본 논문에서는 간략하게 소개만 한다. 화교화인 정체성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집행은 국무원 교무관공실이 중심이 되어 지방 교무관공실, 화문교육기금회, 해교 등 직속기관 및 외곽기관을 동원하여 이루어진다. 현재 교육사업, 특히 화문교육 사업과 화문교육 프로그램이 교무관공실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물론, 북경화문학원, 기남대학, 화교대학 등 화문 교육 직속 기관 사업비가 포함되지만, 다른 기관을 통한 여러 프로그램 사업비도 적지 않다. 또한, 중국 내 51개 대학이나 전문학교가 화문교육기지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고, 해외에는 2009년부터 화문교육시범학교가 지정되어 현재 250여 개에 달하고 있다. 교무관공실은 화문교육기지와 화문교육시범학교를 통해, 화교화인을 대상으로 한 교사 연수, 언어 및 문화 프로그램, 경연 프로그램 실시, 교재 및 교구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중국 내로 초청하는 화교화인 교사 연수 프로그램은 여럿이며, 해외 화교화인지역으로 중국 교사나 명사를 파견하기도 한다. 중국을 방문하여 정체성을 찾으려는 화교화인을 대상으로 하여 ‘중국뿌리찾기여행’, ‘중국어언어문화여행’ 등이 마련되어 있다. ‘중화문화대낙원’은 해외화문교육기관으로 찾아가서 캠프를 여는 프로그램으로 중국과 해외 화교화인 사회가 교류하는 것이다. 또한, ‘세계화문교육대회(世界華文教育大會)’를 2009년부터 실시하였는데, 작문대회, 중화문화대회, 노래대회, 서예나 변론 등 다양한 대회를 통해 중국어 및 중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하고 있다. 참가하는 화교화인은 매년 급증하고 있고, 특히 중국 국내의 청소년이 같이 참여하여 교류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확장함에 따라, 그 규모는 시진핑 시기 들어 더욱 확대되고 있다. 글로벌 차원에서 중국과 해외의 구분을 사실상 없애고, 중화민족 동포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중화민족의 정체성을 강화하려는 시진핑의 중국몽 사상이 현재화되는 프로그램이라 할 것이다.

#### IV. 결론

시진핑 시대 화교화인정책은 이전 후진타오 시대를 계승하면서도 구별되는 여러 특징을 지니고 있다. 후진타오 시기 화교화인정책은 중국 종합국력의

한 주체로 화교화인을 위치시키면서 역할을 강조하고, 정체성 강화를 위한 중국어 교육 및 정치력 신장 등의 조치를 제도화하는 과정이었다. 중국 국적자인 신화교들의 해외진출도 장려하였다. 그러나 시진핑 시기 화교화인정책은 점차 글로벌화하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와 시진핑의 국가전략인 중국몽에 따라, 공세적이고 체계화되는 구체적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나타났다. 화교화인 동포가 애국심과 거대한 경제력, 풍부한 지적 자원, 넓은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몽 실현의 중요한 역량으로 범주화되면서, 일대일로 같은 국가전략 추진의 중요 파트너가 되었다. 또한, 중화민족의 외연을 확대하여 화교화인까지 포함하는 동포의 개념을 제시하여, 중국의 내외를 아우르는 글로벌 이주 현상에 걸맞은 확장력을 보인 것이다. 이런 인식 기조하에 화교화인정책을 추진하는 기구의 개편과 운영방식이 변화하였으며, 화교화인 정체성 강화를 위한 화문교육 및 교류사업 프로그램이 대대적으로 실시되기 시작하였다. 시진핑 집권 2기를 맞아 이런 추세는 더욱 강화되고 있는 듯 보인다. 그 결과 화교화인이 거주하는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중국과 화교화인의 진출에 대한 의구심과 마찰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화교화인이 중국 정부의 의도대로 중국 국가이익의 첩병이 될 것인가, 아니면 중국과 세계의 공동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중국의 화교화인정책의 변화와 세계의 대응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 참고문헌 |

1. 논문 및 단행본

- 공봉진 (2015). “시진핑 시대의 중국민족정책 연구.” 『동북아문화연구』. 제43권, pp. 205-232.
- 권기영 (2015). “중국문화 해외진출(走出去) 전략 및 유형 분석.” 『중국문화연구』. 제28권, pp. 125-150.
- 김태만 (2013). “시진핑의 ‘중국몽(中國夢)’과 문화강대국의 길.” 『동북아문화연구』. 제37권, pp. 5-31.
- 김혜련·임채완 (2015). “중국의 귀환동포정책의 특색 분석.” 『China 연구』. 제18권. 1호, pp. 35-62.
- 나영주 (2015). “중국의 화교화인 정책: 변화와 전망.” 『민족연구』. 제61권, pp. 54-78.
- 박운석·이승우 (2013). “공자학원의 문화전파 이론과 모델.” 『동아인문학』. 제25권, pp. 167-184.
- 이진영 (2005). “중국의 화교정책: 배제에서 이용으로 그리고 네트워크의 구축.” 『현상과 인식』. 제21권. 제1-2호, pp. 54-76.
- 田寅甲 (2015). “지식 패러다임의 反轉과 ‘帝國夢’-‘中華’의 再普遍化로.” 『중국근현대사연구』. 제68권, pp. 225-259.
- 채하연 (2008). “중국의 소프트파워로서 공자콘텐츠의 전개 현황 및 의의.” 『유교사상문화연구』. 제33권, pp. 321-347.
- 최승현 (2012). “현대중국의 화교화인정책의 특징.”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국제학술회의, pp. 253-266.
- 최은진 (2015). “언론매체를 통해 형성된 공자학원 Confucius Institutes 이미지와 중국의 소프트 파워 확산.” 『중국학연구』. 제72권, pp. 65-95.
- 판스핑 (2014). 『중국의 화교정책과 업무체계』. 재외동포재단.
- 홍건식 (2018). “시진핑의 중국몽과 정체성 정치-일대일로, AIBB 그리고 패권정체성.” 『국제정치논총』. 제58권. 1호, pp. 99-146.
- 桂世勛 (2011). “海外華僑華人及其對祖(籍)國的貢獻.” 『華僑華人研究報告』, pp. 51-84.
- 丘進·嚴武龍 (2011). “中國僑務政策概述.” 『華僑華人研究報告』, pp. 38-50.
- 范如松 (2012). “僑務工作與國家軟實力.” 『華僑華人研究報告』, pp. 247-277.
- 范如松·嚴武龍 (2012). “保護華僑在國內權益應豫立法.” 『華僑華人研究報告』, pp. 278

-292.

- 孫倩 (2018). “韓國孔子學院運行模式考察.” 『중국어문학논집』, 제110권, pp. 129-146.
- 王志章 外 (2012). “華僑華人: 中國國家軟實力建設研究回眸與展望.” 『華僑華人研究報告』, pp. 181-218.
- 夏春平 外 (2012). “海外華文媒體在中國戰略轉型中的獨特作用.” 『華僑華人研究報告』, pp. 219-246.
- 華僑華人藍皮書編委會 (2012). “全球華僑華人: 中國國家軟實力建設中一支不可感缺的力量.” 『華僑華人研究報告』, pp. 1-46.
- 華僑華人藍皮書編委會 李明歡 (2011). “國際移民大迫勢與海外僑情新變化.” 『華僑華人研究報告』, pp. 1-37.

## 2. 기타

- “中, 소수민족·종교 통제 강화한다... 당 통일전선부 역할 확대.” 『연합뉴스』, 2018년 3월 22일.
- “中 ‘외교 수장’ 왕치산, 北 정권 70주년 행사 참석.” 『조선일보』, 2018년 9월 8일.
- “해외로 된 역적이 시진핑 전위대로... 21세기 ‘화교’의 변신.” 『중앙일보』, 2018년 2월 6일.
- “第十次全國歸僑僑眷代表大會在京開幕, 3000人齊聚人民大會堂共襄盛會!” 『新華社』, 2018년 8월 30일.
- “做好‘同圓’‘共享’兩篇大文章.” 『인민일보』, 2016년 3월 14일.
- 네이버 포스트 (2017). “화교들이 많이 사는 나라 TOP 10.”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7997187&memberNo=32660183&vType=VERTICAL>. (2018년 10월 15일 검색)
- 교무관공실. “北京海外交流協會2018年年會舉行.” <http://www.coea.org.cn/2018-10-08/detail-iuuswwpc6868466.shtml/>. (2018년 10월 15일 검색)
- 중화전국공상업연합회. <http://www.acfic.org.cn/>. (2018년 10월 15일 검색)
- 중화전국귀국화교연합회. <http://www.chinaql.org/>. (2018년 10월 15일 검색)
- 중국교망(中國僑網). <http://www.chinaqw.com/>. (2018년 10월 15일 검색)
- 중국어문화교육기금회. <http://www.clef.org.cn/>. (2018년 10월 15일 검색)
- 중국어외교류협회. <http://www.coea.org.cn/>. (2018년 10월 15일 검색)
- 전국정치협상회의. <http://www.cppcc.gov.cn/>. (2018년 10월 15일 검색)
- 홍콩-마카오-대만 화교 위원회. <http://www.cppcc.gov.cn/zxww/newcppcc/gatqwyh/index.shtml>. (2018년 10월 17일 검색)

- 국무원 교무관공실. <http://www.gqb.gov.cn/>. (2018년 10월 15일 검색)
- 국가한판. <http://www.hanban.edu.cn/>. (2018년 10월 15일 검색)
- 공자학원. <http://www.hanban.edu.cn/confuciousinstitutes/>. (2018년 10월 15일 검색)
- 화교위원회. [http://www.npc.gov.cn/npc/bmzz/huaqiao/node\\_34380.htm](http://www.npc.gov.cn/npc/bmzz/huaqiao/node_34380.htm). (2018년 10월 15일 검색)
- 구미동창회. <http://www.wrsa.net/>. (2018년 10월 15일 검색)
- 중국 치공당. <http://www.zg.org.cn/>. (2018년 10월 15일 검색)
- 중국평화통일촉진회. <http://www.zhongguotongcuhui.org.cn/>. (2018년 10월 15일 검색)
- 통일전선부. <http://www.zyztb.gov.cn/html/index.html>. (2018년 10월 15일 검색)
- 통일전선부. “홍콩-마카오-대만 및 해외부문.” <http://www.zyztb.gov.cn/gathw/index.jhtml>. (2018년 10월 17일 검색)

| 논문투고일 : 2018년 11월 08일 |

| 논문심사일 : 2018년 11월 21일 |

| 게재확정일 : 2018년 12월 04일 |

ABSTRACT

Journal of Asia-Pacific Studies Vol. 25 No. 4 (2018)

## **China's Policy towards the Overseas Chinese in Xi Jinping Era**

**Jean Young Lee**

(Dept. of Politics and Int'l Studies, Inha University)

In Xi Jinping era, China's policy towards the Overseas Chinese(OC) become changed in many aspects. First of all, policy guideline is aligned with the Chinese Communist Party(CCP)'s new doctrines such as 'Thought on Socialis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for a New Era,' 'National Rejuvenation,' and 'Chinese Dream.' Here, roles of OC in a more globalized world become important. OC become partners with the CCP in driving China's national projects such as 'One Belt One Road.' Also in concept of Chinese nation (Zhonghua minzu), OC start to be included in the name of Chinese compatriot (tongbao). For these national tasks above, CCP changes roles of institutions related to the OC affairs in the CCP and in the Chinese government. OC Affairs Office in State Council organizes several networks and pushes programs for OC affairs, particularly in Chinese culture and language education, with related government bodies, social mass organizations in China and educational bodies abroad. With these initiatives, CCP is driving a very active policies towards OC in Xi Jinping era.

▪ Key Words: Overseas Chinese, Xi Jinping, Chinese Nation, Chinese Culture, Policy